

영광군, 공약실천 조례 제정... 군민과 약속 지킨다

5월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 구축 주민배심원 구성·현황 공개 “소통 강화·행정 투명성 향상”

전라남도 영광군이 군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인 추진과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를 지난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는 공약사업의 수립부터 이행,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공약실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약 수립·변경 절차 명문화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구성 △공약 이행 현황 공개 의무화 △이행 실적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 등이다.

영광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신뢰

도와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은 민선 8기 장세일 군수 취임 후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군정 목표로 지역경제(8건), 주민복지(21건), 농산어촌(9건), 문화관광(6건), 공감행정(6건) 등 5대 분야 50개 공약을 확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공약 이행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이 공약 추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군수실에 공약

이행 현황판을 설치해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전용 누리집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중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약이행 실천 교육(매니페스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군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뮤지엄x즐거다’ 운영 신안군 저녁노을미술관 문화 향유 확대 목표

전라남도 신안군은 저녁노을미술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뮤지엄x즐거다’ 교육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뮤지엄x즐거다’ 사업은 실험적인 신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창의적 역량 강화와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급변하는 공동체, 박물관의 미래’를 주제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저녁노을미술관은 기획전 ‘보타니, 섬의 정원’ 전시와 연계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기관 대상 학교연계 ‘우리가 만드는 미니정원’ △신안군 초등학교생 저학년 대상 퍼포먼스 ‘자연의 몸으로 느끼기’ △성인 대상 주말교육프로그램 ‘1004섬 미니 예술 정원’이며 오는 5월 한 달간 진행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녁노을미술관만의 특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며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진로체험 플랫폼 ‘꿈길’을 통해 신청받고 있으니 교육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완도군, 사업비 12억 투입 향토 수종 2만8000여본 식재

전라남도 완도군이 기후 대응 기금을 포함한 사업비 총 12억원을 투입해 군외면 원동교차로 일원 1.2ha에 ‘기후 대응 도시 숲’을 본격 조성한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은 생활권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도시 숲을 조성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 숲은 단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 변화 예방,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미세먼지 차단, 생활권 내 탄소 흡수원 확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군은 최근 군목으로 변경된 완도호랑가시나무를 포함해 지역 향토 수종 위주로 난대활엽수 25종, 약 2만8000여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미세먼지 제거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후 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수종으로 꼽히며 빨간 열매는 관상 가치가 높다.

도시 숲 조성은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도시 숲은 조경을 넘어 하나의 숲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시 숲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시설별 맞춤 대책 수립 운영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내달 1일부터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하수도 분야 환경기초시설을 지난 2023년 29개소에서 2024년 53개소로 24개 사업을 추가 준공해 처리효율을 증가시켰다.

하수관로 노후화 및 계절적 수질변화 등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기술지원을 적극 실시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건수가 2023년 43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46.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현재 전남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84.3%로 전국 하수도 보급률(95.4%) 대비 낮은 실정이나, 올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대폭 확대(2024년

4860억원 →2025년 6781억원)해 사업을 추진하면 하수도 보급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 민간 전문가 등 수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반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성능 및 운영 공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 사항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기술지원 후 시설별 맞춤형 대책의 분기별 이행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장비의 전면 개량이 필요한 경우 국고 지원도 적극 검토하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추진해 하수처리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웅 기자



장성군이 5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디지털 예찰방제단 11명을 운영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스마트폰 앱 활용 과수 화상병 예찰

전라남도 장성군이 과수 화상병 예찰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다.

장성군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1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관내 모든 사과·배 재배 필지를 예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예찰 시에는 스마트폰 앱 ‘팜식스플러스’를 사용할 계획이다.

팜식스플러스앱은 △실시간 예찰 현황 확인 △의심 증상 등록 △병해충 발생 정보 입력 △사진 촬영 △음성 메모 등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

장성군은 지난해 ‘팜식스플러스’ 시범사용을 통해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증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디지털 기반 예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게 됐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전염성 세균병으로 발견 즉시 제거·폐기·매몰해야 한다. 폐원 시에는 18개월간 재배금지 조치해야 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장성군은 꽃 피기 전후로 3회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방제 시기를 실시간 안내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방제시스템 도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언정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디지털 예찰방제단 운영이 과수 화상병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에서도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로 ‘화상병 청정장성’ 만들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삼도농협, 조합원 자녀에 학자금 700만원 전달

2009년부터 꾸준히 지원

광주광역시 삼도농협은 지난 23일 삼도농협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조합원 및 대학교 신입생 자녀 7명에게 총 700만원의 학자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임문채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해 조합원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임문채 조합장은 “신입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농업과 농촌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우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삼도농협은 환원사업을 통



해 조합원의 실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도농협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총 2억11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며 조합원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미래 인재 육성에 힘써왔다. 조진웅 기자

함평군, 나비대축제 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전라남도 함평군이 지역축제를 앞두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4일 함평군은 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군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지난 22일 함평천지전통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불공정행위 근절(바가지요금 등) △착한 가격업소 이용 독려 △함평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떡깨비’ 가맹점 가입 흥

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축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을 찾는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함평군이 천지전통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쳤다. 함평군 제공

한편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황금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황금박쥐 캐릭터

‘황박이’와 함께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봄날의 생태 축제를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선보인다. 함평=신재현 기자

